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

남겨야 할 것들

< 문 법 >

심 찬 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의 중요성은

중언부언 하지 않더라도,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문 내용을 모두 알기 때문에, 답을 외웠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6월의 그 뜨거움을, 모의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평가원 모의평가의 수능 반영 비중은, EBS의 그것을 넘어설 만큼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역설하지만 솔직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EBS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평가에 주목해야만 할까요?

2014년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20주년을 맞아, 평가원에서 만든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사'라는 제목의 내부 연구 자료를 보면, 6월과 9월 실시되는 두 번의 평가원 모의평가가 가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 수능 출제·시행 측면에서의 '모의'이다.

수능에서 무리 없는 적절한 시험 난이도를 유지하고, 다수의 수험생이 치르는 시험 시행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전 모의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의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 출제·시행 기관인 평가원은 수험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현재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수능에 대한 사전 적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모의평가이다.

모의평가는 수능 시험을 대비한 '연습' 시험이다. 시험의 출제·시행기관도 이를 통해 연습하고, 수험생들도 두 번의 모의시험을 통해 본시험을 대비 하게 된다.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 번의 모의평가는 좋은 연습이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매번 하는 뻘한 이야기들처럼 보이지만, 모의평가 시행 취지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00여명의 출제·관리팀과 수험생들의 연습을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출제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제시된 문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연습한 그대로' 그 해 수능을 출제하고 응시하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려운 개념, 지문의 구조, 문제의 유형 등 수능 당일, 미리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모의평가에서 미리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연습하고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6월 2일 모의평가(실시), 9월 1일 모의평가.

올해 수능의 가능자가 될 두 번의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전에서 취할 문제풀이 방식과 시간 관리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 6월 평가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 문법 >

불친절한 평가원과 불친절한 문법

6월 모의평가에서 꽤나 재밌었던 영역이 아니었을까. 통합형 수능 이후 '중세국어' 출제가 지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평가원은 우리의 기대를 가볍게 밟아버렸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에 출제방식이 <보기>를 통해 문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이었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보기>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개념은 학생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바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물었다.

현 수험생들은 2009 개정 교과이후 첫 수능이었던 2014학년도 수능 이래 3년의 연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출제하겠다는 평가원의 애초 취지는 다소 열린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제는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 웬만큼 그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것. 그래서 평가원은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문법 문제를 출제하는 '프로불편러' 역할을 자처했다. (불친절한 평가원과 불친절한 문법인 것이다)

사실 이런 경향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 이미 그 전조가 보였다는 것.

13.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A]

수능 날 이 문제를 만난 '이과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평가원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장을 제시하고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를 찾아보라는**, 소위 노가다식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법 개념서를 두고 **눈으로만 겉문장에 대해서** 읽고 지나간 수험생, **직접 문장을 놓고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지 않은 수험생**. 그들 모두에게 평가원이 엄중 경고·처벌을 내린 것과 같다.

이제부터 수험생들은 **불친절한 문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 2015학년도 기년비적 문제를 통해, **문법 공부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문법'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군더더기 없는 문법**'이었다. 과거에 기출된 문법 문제들을 보면 교과 상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법들(왜 중요하지 않은지는 뒤에 설명), 가령 '대명사에 대한 이해'나 '직·간접 화법의 이해'와 같은 것들을 출제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6월은 정말 물을 것들만 물었다. 문법 공부를 하면 **누구나 배우지만, 누구나 불편해 하는 개념인 '음운의 변동', '비통사적 합성어'와 '불규칙 활용', '본용언/보조용언'** 그리고 '**접문장(안긴/안은 문장)**', '**용언의 활용**'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출제했다.

문법에 대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전제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뺏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국어 규정 정립'을 시도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표준어·맞춤법 규정 및 사전의 단어 정의를 존중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학교 문법'이라 불리는(교과서 상에 나오는 문법과 기본적으로 합의된 문법 사항 및 용어들) 문법 사항을 벗어나는 내용은 **절대로 출제하지 않는다.**

→ 엉뚱한 문법들을 들고 와서,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1) 중세국어, 너 어떡하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열려있음을 미리 전제한다. 그리고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선불리 출제될 문제나 지문을 예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음도 역시 전제한다.**

'용언의 활용'을 소재로 한 11번~12번 문항은 **용언의 활용에 대해 통시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학습 활동을 문제화하여,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함께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2016년 6월 2일, 6월 모의평가 관련 보도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 실시 당일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힌 **출제의도**다. 출제의도를 먼저 밝히는 것은 '중세국어', '신유형' 등등 기타 잡소리들이 시중에 떠돌면서 수험생들에게 쓸데없는 고민과 부담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 공시대, 통시태에 대한 개념은 '2008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40 - 42번' 참조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시험지에도 나와 있듯, 이 문제는 '**중세국어**'를 묻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용언의 활용'**을 묻는다. 평가원의 출제 기저에 깔려 있는 '**이분법**' 논리를 이용해 '15세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용언의 활용'을 비

교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 '중세국어'에 대한 지식은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만 확인하면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용언의 활용'과 '지문 독해'에 있다. 다만 공부가 하기 싫다는 투정 섞인 태도로, '중세국어'를 공부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엄연히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국어의 변천'이라는 단원이 존재하고, 이를(국어사) 글로 풀어서 출제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은 해야 한다.**

아마 시험장에서 처음 이 지문과 문제를 확인한 사람은 12번 문제의 반치음이나 비읍 순경을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지문에서는 중세국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다.** → 9월에도 이 경향이 이어진다면, 최소한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틀리진 말자.

* 명심할 것은, 시험 종료 후 다시 지문을 풀어본 학생들 스스로가 '아 내가 순간 당황해서, 낯설어서 틀렸구나, 다시 풀어보니 쉽구나'를 인지했기 때문에 **9월에는 정답률이 더 올라 갈 가능성이 높다.**

<대화 1>

A: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또 하나의 확인사항은 **문제에 빨간색 네모로 체크된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 '활용'과 '규칙·불규칙 활용' 등에 대한 이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뜻.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학습되어있지 않다면 지문을 읽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문법'이 '비문학' 지문 속에 녹아있는 형태는 과거 언어영역 시절 출제된 '언어학' 지문들이다. → 대표적인 예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6 - 38번 참조'**

'이분법'의 논리는 반드시 수능에 출제된다. 이유는 앞선 칼럼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11번 - 12번' 지문에서 '돕-, 짓-'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를 구분**해서 지문을 전개하고 있다. 시험 당일 지문을 읽어 나가는 학생은 '자음으로 시작할 때'와 '모음으로 시작할 때'를 **철저하게 구분 지어 이해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문제화 될 수 있음을 직감했어야 했다.** → 12번 문제에서 그 부분을 묻고 있다. 메가스터디 채점서비스 기준 정답률이 **43%**다.

추가로 11번에서 정답이 ②번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③, ④, ⑤번을 읽지 말고 바로 넘어 갔어야 했다.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라는 이유로 나머지 선택지를 다 읽고 있는 학생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지문 독해 연습과 더불어 무조건 문제의 답은 '지문에 있다'는 **확실한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이는 선생이나 강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험생 스스로가 납득하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시간을 Save해서 '예술+과학' 지문에 쏟아 부었어야 했다)

9월 모의평가 전까지 '중세국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머지는 '비문학 지문 독해 연습'에 더 집중하기를 권한다.

2) 평가원이 사랑하는 문법의 주제들

평가원이 사랑하는 문법 주제는 5가지다. →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면 된다.

음운의 변동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5월 예비시행(B)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 [2014]대학수학능력시험(A) [2015](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B) [2015](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B) [2015]대학수학능력시험(A·B) [2016](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B) [2016](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 [2016]대학수학능력시험(A·B) [2017](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
용언 (개념, 활용, 사·피동 등)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 [2015](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 [2015](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 [2016](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B) [2016](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B) [2016]대학수학능력시험(A) [2017](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
문장성분 · 문장구조 (+ 서술어 자릿수)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5월 예비시행(A)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B)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B) [2014]대학수학능력시험(A) [2015](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 [2015]대학수학능력시험(A) [2016](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 [2017](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
높임법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B) [2014]대학수학능력시험(A·B) [2015](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B)
사전의 활용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5월 예비시행(A)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B) [2014](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 [2014]대학수학능력시험(A) [2015](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A·B) [2015]대학수학능력시험(A·B) [2016](한국교육과정평가원)6월 모의평가(A·B) [2016](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모의평가(B) [2016]대학수학능력시험(A·B)

위 주제들 중 2-3개는 반드시 그 해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에 출제된다. 왜 그럴까?

실제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들은 그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출문제들을 풀다보면 '어근'과 '접사'에 대한 출제 빈도가 생각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국어원에서 생산하는 논문들의 입장과 학교 문법에서 합의된 정도, 심지어 타 대학에 비해 국어학 교수진이 다소 강한 서울대(이희승·고영근계)와 연세대(최현배·남기심계)의 견해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 필자 역시 졸업 논문에서 '접사 늦-'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구석에서 자주 눈물을 흘렸다.

따라서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학계에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문법 개념은 출제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원칙이 있다.

→ '2017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2번'의 오류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5문제라는 한정된 문항 안에 학교 문법의 핵심들을 출제해야 하는 평가원 입장에서는 짜잘한 문법 사항들을 출제하는 것이 아닌, '한국어의 독특한 문법적 성질·개념'을 출제하려 한다.

국어 II 교과서를 배울 당시, 한국어가 언어로서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배웠는가. 한자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우리나라가 이두와 구결, 나아가 향찰까지 만들어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조사'와 '어미' 때문이다. '높임'이 존재한다는, '용언'이 '활용'된다는 특이점도 있다.

한국어만의 독특한 언어체계, 한국어가 만드는 독특한 문법 양상들을 출제자들은 출제하고 싶어 한다.

위에 정리한 문법체계는 기출된 단원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출제자들의 머리에 구현된 문법의 출제 관심도를 표시한 것이고, 그에 따라 기출문제들을 분류했을 따름이다.

→ 특히 '용언(의 활용)'과 '높임'은 문법 출제의 핵심이다. 반드시 정리하고 학습해야 한다.

- ①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이 B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 ②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 ③ ㉢: 감탄사를 사용하여 A의 발화를 듣고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 ④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B에게 일어난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낸다.
- ⑤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B에게 일의 까닭을 상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2016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A 15번]

잡다한 문법 개념들을 모두 물어보고 싶을 때는 위와 같은 출제방식을 택한다.

<보기>에 담화를 제시하고, 문법 개념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선택지로 구성한다.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모두 맞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불친절한 문법의 민낯

위에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를 들었듯, 문법 교과가 독서와 함께 신설된 지, 올해가 햇수로 4년에 접어들었다. 평가원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정답률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불친절한 문법들을 출제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가졌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그 민낯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12.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 ② 돌아서다
-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 ⑤ 오르내리다

[2015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A]

직접적으로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단출한 선택지들에 비해 <보기>가 상당히 거창하다. 당초 2009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한 차례의 예비시행과 교육과정 개선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법에 대해 수험생들이 가지는 부담**’의 정도를 해소해 주기 위해 **평가원이 상당히 배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 기출된 문제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땅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앞선 문제가 출제되고, 햇수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마치 이별 앞에 서있는 여자 친구의 모습처럼 상당히 냉랭하고 직설적이며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한** 문법 문제다.

사실 문제를 다시 구성해보면, <보기>에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두 용어만 적시해놔도 문제는 충분히 성립한다. **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수험생은 느꼈어야 한다.**

다만 이제부터 출제되는 문법문제들은 **15번과 같이 직접적이고 때로는 불편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 남은 기간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개념중심의 문제풀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추가로 14번 문제에서 제시한 문장 및 문제로 연습해볼 수험생은

'작문(8번 - 10번)'의 3문단에 제시된 문장 및 '2017학년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1차, 13번'으로 할 것

→ '작문(8번 - 10번)' : 이 소식을 접한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 소나무들을 베어 버리는 것에 대해 -

4) 문법을 더 출제하고 싶은 평가원의 욕망

33번처럼 '문학' 또는 '비문학'의 어휘문제 자리에 '문법'이 출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09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39번'처럼 기존에도 출제 해왔던 패턴이다.

이제 '문법'은 단순히 5문제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다. 비문학 '지문독해'의 엄밀성과 더불어 갑자기 튀어나오는 소위 갑툭튀 문법 문제들을 능숙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 문항은 국어의 음운 규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음운 단위, 음운 변동 현상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례에서 드러나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음운 규칙의 원리만은 단순히 기억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음운 규칙을 도출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 학습방법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평가원에서 직접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A 11번'을 예로 들며 단순히 지식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들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번에 출제된 13번 문제에서 보듯, 개념서를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공부 방법을 택한 학생은 문제풀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 문장과 예시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꼼꼼하게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우린 직면했다.** 시간 아깝다 하지 말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

자음체계표							
조음방법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무성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유성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자음 체계'다. '음운'을 공부하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쯤은 본 그 표. 모음삼각도·사각도 그려보고, 두음을 따서 외우고 온갖 난리 다 쳤었다. 심지어 미술을 좀 하셨다는 선생님의 화려한 단면도 그림 앞에서 소리 내어 발음해보기도 했었다. **그런데, 정말 그대는 기억하고 있는가.**

13번의 ②번에서는 '조음방법'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시험장에서는 그냥 넘어갔겠지만, 최소한 시험 이후에 평가원이 제시한 저 내용에 대해 한 번이라도 학습을 했어야만 했다.

④ ㉔: ‘걸모양→[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A 11번]

② ㉑, ㉒: ‘입+니→[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작년 수능에서도 출제 했었다. 작년에는 ‘조음위치’, 올해는 ‘조음방법’이다. ‘문학 심층 분석’에서도 설명 했었지만 ‘공감각적 심상’ 역시 이런 식으로 시나브로 맛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훅 들어왔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 봐서 익숙해질 정도로 공부하자. 수능은 암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은 표를 이 해한 걸 전제로 이를 활용하고 사례에 적용하기를 원한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이해

국어영역 강사 '심찬우'